

01 교회소식

“올해도 하나님 축복이 넘쳤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더한 2013 성탄 점등식 및 2013년 한 해를 되돌아보며 만민뉴스가 선정한 우리 교회 12대 뉴스를 소개한다.

02 생명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경작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고 결코 버리지 않고 변화시키는 사랑이며, 큰 영광을 주시는 사랑이다.

03 -04 송년 특집

하나님 사랑으로 달려온 2013년

한 해가 저물어간다. 12대 뉴스를 통해 올해도 우리 교회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돌린다.



만민뉴스

제614호 2013년 12월 29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2013 성탄 점등식

지난 12월 20일 저녁 9시 50분, 교회 야외에서 GCN 방송으로 생중계 되는 가운데 성탄 점등식이 있었다. 교회 마당을 가득 메운 수천 명의 성도가 “반석으로! 영으로! 온 영으로!”를 외친 뒤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빛이여 임하라!”고 하자 성탄 장식에 형형색색 아름답게 빛이 수놓아지며 어둠을 밝혔. 이어 예능위원회 천상의소리선교단 소속 김지애 교육전도사의 특송 후,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믿음 생활을 잘해서 영의 물결 타고 반석으로,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오면 너무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라며,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기도해 온 교회적인 기도제목들을 응답받아가며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만민뉴스가 선정한 12대 뉴스



근본의 소리가 발해진 송구영신예배

하나님께서 2012-2013 송구영신예배를 기점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근본의 소리를 통해 신속한 치료와 응답은 물론, 축복과 사람의 마음까지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베풀어 주셨다. 무엇보다 목자의 희생과 사랑으로 발해지는 근본의 소리를 통해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며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이 신속하게 성장하는 등 잊지 못할 축복의 한 해가 됐다. ‘근본의 소리’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역사도 근본의 소리를 발하셨기 때문이다(요 11장).



신앙의 부활로 나온 3월 31일 부활절

연초부터 주의 종과 레위족(교회 직원)들에게 주어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고 급속한 영의 흐름을 탈 수 있는 축복이 임했다. 이러한 영적 흐름은 전 성도로 확대됐다. 유예기간의 마지막 날인 3월 31일 부활절을 맞아 아브라함의 간구로 조카 롯이 구원받은 것처럼 목자의 간구로 공의로는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의 담들이 털어져 더욱 신속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신앙의 부활로 나온 부활절을 기점으로 주의 종을 비롯해 전 성도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이 임해 더욱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요한일서 4:16)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런 자녀를 쉽게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생명의 길을 알려 주셔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 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6천 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아는 참된 아들, 딸이 나오리라.’ 간절히 기대하시면서 참으셨지요. 영적으로 ‘오래 참는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로 인해 밀려오는 모든 여파를 감당하며, 열매를 낼 때까지 대가를 치러 내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그 여파를 감당하며, 대가를 치르기 위해 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사랑스럽게 지으신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해야 할 때, 하늘에서 쏟아지는 홍수의 빗줄기 만큼이나 하나님의 가슴에도 눈물이 흘렀지요. 또 선민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셨고, 결국 그들이 멸망하는 것도 보셔야 했습니다. 독생하신 아들이 인생들에게 멸시당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도 보셨지요.

하나님께서 신성을 가진 분이려 해서 이런 일들을 쉽게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인성도 가지셨기 때문에 아픔과 슬픔, 기쁨과 감동을 느끼시지요. 더구나 선 자체이시기에 이런 감정들을 더욱 절절하게 느끼십니다. 소중한 세상이 죄로 물들고 인생들이 악을 발하는 것을 보실 때마다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겪어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처음에 계획하신 인간 경작의 역사를 마칠 때까지 반드시 참 자녀들이 나오리라는 믿음으로 긴 세월을 참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를 받고 즉시 주님을 믿지 않았거나, 교회에 나와서도 여전히 죄를 버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몇 번 기회를 주시다가 포기하

셨다면 아마 구원받을 분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참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지금에 이를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버리지 않고 변화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많은 권능을 보았습니다. 열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을 보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체험들을 무수히 했는데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을 볼 때는 기뻐하고 찬양했지요.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면 원망 불평을 쏟아내며, 불순종에 불순종을 거듭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고자 하셨지만 모세가 생명을 걸고 용서를 받아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를 보면서도 모세가 담대히 용서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공의로 따지면 멸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도 어찌하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임을 모세는 잘 알았습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 오랜 노예살이 속에서 심히 강박해진 백성을 인도하는 일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새 백성을 이뤄 처음부터 율법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훨씬 순종을 잘 할 수도 있지요.

만일 여러분이 아들을 낳아 애지중지 키웠는데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다면 “어차피 완치도 안 되는데 이런 아이를 키우느라고 더 이상 고생하지 말자. 건강한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잘 키우면 되지.” 하고 아픈 아들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부모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아질 가능성이 티끌만큼만 있어도, 집안의 재물을 탕진한다 해도 끝까지 아이를 고쳐 주려고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하십니다. 노하기도 하고 호되게 책망도 하시지만 버릴 수가 없으셨지요. 어찌하든 살려서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난날 여러분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선택했다.” 할 수 있으십니까? 의와 틀은 얼마

나 강했고, 얼마나 많은 불순종을 낳았습니까? 주변에서 볼 때 ‘저분이 언제나 변화될까?’ 생각할 정도로 답답하고 변화가 더딘 분들도 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셨고, 변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 까닭에 지금도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며 달려갈 수 있음에 다시 한 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광의 열매를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사기를 원하옵나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주님을 닮은 참 자녀가 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셨지요.

물론 낙원만 가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간발의 차이로 지옥의 불길에서 벗어났으니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신 것은 낙원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직 죄를 다 버리지 못해서 부끄럽고 민망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로 변화돼 큰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지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구원 이상의 것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믿음의 분량이 다름을 알고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해야 함을 알지요. 이렇게 더 큰 영광을 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고 버리지 않고 변화시키는 사랑이며, 큰 영광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회개해 구원받는 것은 물론, 믿음의 반석에 서서 영과 온 영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눈으로 하얗게 덮인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을 포근하게 덮어 주기 원하시고, 깨끗하게 만들어 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 주셨지요. 예수님은 3년의 짧은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지요.

이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도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즉 진리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죄와는 상관없이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날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교회들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가는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오래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지으신 이유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녀들과 서로 사랑을 나누며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셨지요. 그러나 그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http://news.manmin.org>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235-3
대표전화 02) 818-7000

교회로 오시는 길

교회버스 (교회 차량/ ☎ 02) 818-7391~5)
주일·금요일: 각 지역별로 운행(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일원)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지역(번 출구)/ 환승 5536
7호선 남구로역(2번 출구) 도보 10분

사내버스
디지털단지 오거리 정류장/503,504,571,652,5618,5619, 5626,5630,5712,5714
연희미용고등학교 정류장 (남부순환도로)/ 651,5528 504,643,5626
구로디지털단지 정류장 (시흥대로)/5,51,150,505,507, 5531,5534,5601,5616,5617,5620,5621,5623,5624, 5625,5627,5633,5713,6512,6635,금천06/환승 5536
만민중앙교회 앞 정류장/ 5536, 5616(번도), 5616(번대면 편도)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요식업선교회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빛과소금 수요찬양예배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가요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간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간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2074

우리은행 1002-048-310140 (예금주 김연선)

3

영 분리를 통해 주신 천국 소망

사도 바울은 몸에서 영이 분리돼 낙원을 보고 왔다(고후 12:2). 이러한 역사가 지난 5월 25일 새벽, 우리 교회에서도 있었다. 금요일아예배 2부 시 하나님께서는 성결한 여덟 명의 주의 종과 일꾼들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한자리에서 영을 분리시켜 지옥 및 음부, 천국의 각 처소를 보고 와서 간증하게 하셨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이재록 목사가 증거해 온 천국과 지옥에 대해 생생히 들을 수 있었고 천국과 지옥의 실존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 아울러 새 예루살렘의 깊은 곳까지 알게 돼 천국 소망이 더해지고 영과 온 영을 이루려는 행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4

'온 영' 주제로 열린 전국 기관장 교육

전국 기관장 교육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를 주강사로 지난 7월 1일부터 3일까지 '온 영(히 10:22)을 주제로 있었다. 전국 기관장은 물론, 많은 주의 종과 교구 일꾼들, 성도들도 참석했다.

이 목사는 신앙의 최종 목표인 온 영의 마음을 이룬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두 번째는 매순간 무엇이 더욱 하나님 편에서 선인지를 분별하는 것, 세 번째는 영적인 충성이라고 전했다. 올해 교육은 '믿음의 분량'을 주제로 열린 2011년 전국 기관장 교육과 '영'을 주제로 열린 2012년 지역장·조장·구역장 교육을 통해 변화된 성도들에게 영과 온 영의 열매로 신속히 나오게 하는 또 하나의 시작점이 됐다.



5

잊지 못할 만민 하계수련회

2013 만민 하계수련회가 전국 지교회뿐 아니라 미국, 이스라엘, 스위스 등 22개국에서 온 성도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월 5일부터 8일까지 전북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열렸다.

GCN 방송(www.gcntv.org)으로 생중계 되는 가운데 첫째 날은 '온 영'을 주제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교육이 있었고, 둘째 날은 전교인 체육대회를 통해 주 안에서 하나가 됐다. 셋째 날은 점핑파크 특설무대에서 이 목사의 인도로 캠프파이어가 열려 전 성도가 한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의 향을 울려드렸다.



6

차원이 다른 권능의 역사

지난 8월 5일, 만민 하계수련회 첫날 교육 시작 전 굵은 비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재록 목사가 "비야 벗어나. 비를 머금은 구름들은 흩어져라. 하늘이 보이고 별들은 나오라." 기도하자 얼마 후 비가 그치고 파란 하늘이 열리며 별들이 보였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뒤덮은 두터운 먹장 구름층을 이 목사의 기도로 갈라놓으심으로 비가 오지 않게 하신 것이다.

교육 후 '환자를 위한 기도' 시간에는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귀가 들리며, 휠체어와 목발이 없는 겉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등 무수한 간증이 이어졌다.



7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권능과 능력 행함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잡아 감절의 영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8월 9일 금요일아예배 2부 시 목자를 신뢰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마음을 닦고자 힘써온 73명의 주의 종과 일꾼들에게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권능과 능력 행함이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

이 목사는 각 사람에게 안수기도를 해 준 뒤, 이들이 영혼 구원 사역에 사용할 손수건에도 권능의 기도를 해 주었다(행 19:11~12). 그 결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나...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 16:17~18) 말씀하신 대로 이들을 통해 표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사모함이 더욱 간절해졌다.



8

교회 창립 31주년 기념예배 및 축하공연

지난 10월 13일, 교회 창립 31주년을 맞아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새 예루살렘(계 21:10~1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 들이시기 위해 성령의 무한하신 긍휼과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에 대해 전했다.

저녁 기념예배 시에는 설교 후 예능위원회 주관으로 '새 예루살렘 목자의 성 2'라는 제목의 축하공연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찬양으로 특별히 기획된 공연을 통해 성도들은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목자의 성에서의 행복과 신비로움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9

은혜와 감동의 GCN 방송 신규 프로그램

교회 창립 31주년을 기점으로, 성령의 복음과 하나님 권능을 전 세계에 전하는 GCN 방송이 새롭게 조직을 개편하고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비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콘텐츠로 새롭게 단장한 17개의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들의 호응이 뜨겁다.

GCN 방송 이사장이며 당회장인 이재록 박사의 '우리 삶의 등불'을 비롯해 '생명수' 등 다양한 TV 설교 프로그램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오늘의 날씨',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1분 영어' 외에도 각종 찬양과 예능, 어린이 프로그램도 있다. 향후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신규로 제작될 예정이다.



10

의학으로 권능을 입증한 WCDN 콘퍼런스

WCDN(세계기독교의사네트워크)은 매년 각국에서 콘퍼런스를 열고 다양한 치유 사례를 발표해 성경이 참임을 입증해 왔다. 지난 6월 14일과 15일에는 '영성과 의학'이라는 주제로 멕시코에서 '제10회 국제기독교 의학 콘퍼런스'가 개최돼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렸다.

24개국 350여 명의 의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학으로 불가능하지만 기도로 완치된 사례를 의학 자료와 함께 발표했다. 특히 멕시코 마누엘 빠스뜨라나 박사는 혼수 상태에 빠진 딸이, 싱가포르 데이빗 유 박사는 요로 감염으로 패혈증과 장 마비까지 이른 아들이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치유된 사례를 통해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다.



11

권능의 역사가 무수히 나타난 손수건 집회

사도 바울의 몸에서 가져온 손수건에서 권능이 나타난 것처럼(행 19:11~12)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으로 우리 교회 주의 종들이 해외 집회를 인도하며 영혼 구원에 힘썼다. 교역자 회장 이수진 목사는 유대교의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만민 전

(순) 지교회 총지도교사 이희선 목사는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5개국과 일본, 캐나다, 필리핀 등 해외 지교회 곳곳에서, 대전만민교회 담임 길태식 목사는 파키스탄과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 샤르자, 아부다비의 알아인에서 손수건 집회를 인도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12

하나님, 주님, 성령님의 사랑이 가득했던 성탄절

올해 성탄절은 그 어느 해보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성령님의 사랑을 마음 절절히 느끼는 뜻 깊은 날이었다.

지난 12월 25일 오전 11시에는 성탄 축하예배가 우리 교회 본당에서 드려졌다. 이날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아버지의 사랑'(요일 4:16)이라는 제목으로 오래 참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영광의 열매를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설교했다.

한편, 12월 24일 저녁 7시에는 성탄 전야 예배로 신동초 목사가 '그 이름 예수'(마 1:21)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후, 예능위원회 주관 축하공연 '주님의 사랑'이 본당 특설무대에서 있었다. 성도들은 지난 3년간 급속한 영의 흐름 속에 복합적인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목자의 사랑을 되새겼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민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민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진구 동평로 168(부암1동) ☎070-8223-491~4, 010-9818-9833
- 서부산민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 2동 109번지 백성 B/D 7층 ☎051)326-1537, 010-5521-2073
- 해운대민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4-5 3층 ☎010-8020-7333
- 대구민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동 1가 104-9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민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37-1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181 온천초등학교 정문 앞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민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구좌동 167-4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민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2-3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민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남외동 549-46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민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102-1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민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391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민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성정동 722-3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민민교회 충남 공주시 신관동 600-22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민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흥동 564-15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민민교회 충남 아산시 권곡동 535-16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민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동 16-4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민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 1동 173-11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민민교회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랑동 956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민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동 700번지 두산강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민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 2동 626-1 ☎055)247-8891~2, 010-5527-2073

- 밀양민민교회 경남 밀양시 내이동 1524-14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문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리 301-5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민민교회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6-18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민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내동 456-12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민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965-1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민민교회 경남 거제시 옥포 2동 520-20 (3층)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민민교회 경북 경주시 동천동 835-6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민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8-14,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민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7940-9367
- 구미민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1098-1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민민성결교회 전남 여주시 둔덕동 500-5 ☎061)652-8311, 010-7317-2073
- 목포민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해동 765-2번지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민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천장리 산 153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민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16-14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민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 2가 929-1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민민교회 전북 익산시 모현 1동 250-3 ☎063)853-0675, 011-637-0263
- 군산민민교회 전북 군산시 나운동 798-7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민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2-(순환대로 637)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민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75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민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63-64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민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312-4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민민교회 제주시 노형동 2775-1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6-3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필포동 508-1 ☎031)485-9143, 010-5583-4697
- 인천지성전 인천시 남구 주안 5동 23-41 ☎032)863-9857, 010-7127-2073
- 김천지성전 인천시 서구 마전동 698-12 ☎032)569-3835, 010-3430-3312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452-3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5-1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길 1동 348-5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시 부평구 부평 4동 890-3 ☎032)528-3830, 010-3430-3312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109번지 ☎031)202-8480, 010-7127-2073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중리동 465-4 ☎031)635-9103, 010-7103-4097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3동 165-1 ☎031)840-2906, 010-8163-1537